

촛불혁명 이후 첫 선거 사전투표 열기 '후끈'

남북미 정상회담 기대감 커지며 투표율 상승 전남중 투표소 한꺼번에 몰려 번호표 주기도

촛불혁명으로 문재인정부가 탄생한 뒤 첫 실시된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는 아침일찍부터 투표소를 찾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특히 남북정상 회담에 이어 열리는 북미정상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현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더해져 사전투표율도 크게 올랐다.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8일 오후 1시 북구 우산동 끝나무사회복지관.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투표소는 근처 직장인, 주민 등 유권자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신원확인을 거친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 한 사람당 적게는 7-8장의 투표용지를 손에 쥐고 기표소로 향했다.

일부 시민은 선택해야 할 후보나 정당에 많아서 인지 기표소에 들어가기 전 한참 동안 투표용지를 바라보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고, 일부 유권자들은 신원확인 대기 중에 스마트 폰으로 자

신의 지역구 출마 후보들의 경력이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기도 했다.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은 투표소 밖에서 손에 짙은 도장을 보이며 '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직장인 전현지씨(28·여·광양시 광양읍)는 "일 때문에 투표일에는 광양에 내려갈 수 없어 관외선거인 투표를 했다"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 후보자들의 공약과 경력을 꼼꼼히 따져본 후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만 한 후보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최재영씨(28)는 "촛불항쟁·남북정상회담 등 큰 국가적 이슈와 함께 드루킹, 댓글조작 등의 보도를 보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전투표 열기는 이틀날에도 뜨겁게 타올랐다.

9일 오후 5시 서구 차평동 전남중학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 9일 오전 광주시 북구청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주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본인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김태규 기자

예상밖으로 많은 투표자들이 몰리자 서구선관위 직원들도 당황해 비뻐졌다.

유권자들의 투표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한 선관위 관계자들은 급기야 근처 상무1·2동 투표소 위치를 안내, 유권자들 분산에 나섰다. '사전투표 선거운인 수송차량'을 급파했다.

선관위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 번호표까지 나눠줬지만 유권자들은 무사히 투표를 마친 후 발길을 돌렸다.

서구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장비·인력을 2배 정도 충원했지만 워낙 투표 열기가 뜨겁다보니 약간의 혼선이 빚어졌기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8-9일 이틀동안 치러진 사전투표 결과 전남은 31.73%, 광주 23.65%의 사전투표율을 보여 전국 평균 20.14%를 크게 상회했다.

전남은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을, 광주는 광역시 중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용현 기자

오늘의 날씨

장성	17~22	흑산도	17~22
담양	17~23	구례	17~24
화순	18~23	곡성	17~23
영광	18~23	완도	18~23
함평	17~24	강진	18~23
무안	18~22	장흥	17~23
영암	18~23	해남	17~23
진도	18~23	고흥	17~23
신안	18~23	보성	16~21

일출 05:18 일몰 19:47
월출 03:20 월몰 16:48

목포: 만조 11:50 ---:--
간조 05:17 17:31

여수: 만조 06:58 19:34
간조 00:44 13:03

문의: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참기름' 만들어 선물 연구센터장

법원, "횡령범죄 처벌" 법정 구속

연구소에서 명절선물용으로 참기름을 만들어 관계자와 지인 등에게 전달하고, 예산 등을 횡령한 모 연구원 전 센터장이 법정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연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62) 전 전남 나노연구센터 센터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벌금 800만원 추징금 1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수장으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음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횡령 범행을 저지하는 등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 "횡령 범행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면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횡령 범행의 경우 순수하게 개인적 유용 목적만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원 기자재 납품 독점대가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무죄로 봤다.

이 전 센터장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3년간 센터 연구비로 4,800만원 상당의 참깨를 구입해 선물용 참기름을 만들었다. 그는 명절마다 참기름 선물세트를 자신 명의로 연구원 관계자와 지인에게 돌렸다. 전남도 출연기관인 나노연구센터는 생물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사업비가 지원된다. /고광민 기자

이한열 열사 묘소에 경찰청장 화환

6·10항쟁 31주년 맞아 애도의 뜻 눈길



6월 항쟁 31주년을 맞은 10일 오전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5·18 구묘역) 이한열 열사 묘소에 이철성 경찰청장 이름이 적힌 추모 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10일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5·18 구묘역)내 이한열 열사 묘소는 비 갠 하늘 아래에서 6

월 항쟁 31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이 열사 묘소 상석 앞에는 이철성 경찰청장이 보낸 화환이 자리했다. 화환은 '추모' 두 글자를 새긴 리본을 달고 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추모 화환은 이청장의 부탁을 받은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가져다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이 추모 화환을 보낸 사실은 경찰청 대변인실과 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청장은 지난해 6월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이 열사를 비롯해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이들을 애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청장은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이제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열사는 지난 1987년 6월 10일 전국 22개 도시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하루 앞둔 9일 연세대 앞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이를 지켜본 시민이 분노했고 이른바 '넥타이 부대'로 불리는 회사원까지 시위에 나서는 등 6월 민주항쟁이 전국적인 민주화운동으로 번진 시발점이 됐다.

이 열사는 26일 뒤인 7월 5일 생을 마감했다. /김종찬 기자

미성년 성폭력, 성인 태도 손배청구 가능

만 19세까지 소멸시효 유예...입법예고

성폭력을 당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다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소멸시효를 멈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적 피해를 당한 경우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멸시효는 법에 정해진 권리를 일정한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민법은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또는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피해자의 불이익이나 가해자와 관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해 당사자의 뜻과 관계없이 성인이 되기 전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5세 때 성적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부모가 가해자를 알고도 3년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18세에 소멸시효가 완성돼 성인이 된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걸 수 없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 가해자를 모른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성폭력 피해를 본 미성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며 성희롱·성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 가운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7월 말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8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피부피로를 다스리는 매화의 힘으로 더 탄탄해진 생기를 누리다

설화수 설링크림

아무리 건강한 피부라도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피부피로를 관리하지 못하면 피부 노화로 이어집니다. 매일매일 지지 않는 피부 생기로 차오르는 설화수 설링크림 강력한 항산화에너지를 함유한 매화성분이 피부 피로를 다스리고 건강한 탄력과 생기를 깨워 눈부신 피부를 선사합니다.

Sulwhasoo
BLOOMSTAY VITALIZING CREAM
설링크림

Sulwhasoo